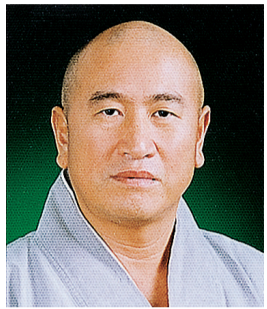


신년사



종 상
(청계사 회주)

2022년 임인년, 나누며 '공생'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해가 밝았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고단한 한 해를 힘겹게 버티고 맞이하는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열기를 바란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선거의 해이면서 지난한 코로나19로 경제 불황 속에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년 전 이맘때쯤, 중국의 우한에 사는 41세의 회계사는 몸이 편치 않았다. 열이 나고 숨이 차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다. 그가 바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목한 최초의 코로나19 환자이다.

지난해 11월 남아공의 33세 남성은 약간의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을 뿐 기침 등 델타변이 감염 증상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 결과는 양성. 이

후 여러 환자들이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코로나19의 최신 변종, 오미크론이 발견되었다.

“덥고 낮은 우한의 회계사나 혹은 남아공의 30대 남성이 열이 나고 몸이 좀 아픈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생선 비린내 동물 냄새 그득했을 그 시장에 등장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과 2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남아공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변종은 일주일 만에 보란 듯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수그르다나보다’ ‘내년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하던 기대는 무너지고 세계는 다시 긴장하고 있다.

백신 불평등

백신이 보급된 지 1년, 접종 예약하느라 신경전을 벌이고, 수일 내지 몇 달을 기다린 후에야 주사를 맞던 때가 아득하다.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백신·부스터 샷을 맞을 정도로 백신이 흔해졌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과학자들은 지적한다. 과학자들은 부유한 국가들에게는 백신이 넘쳐나고 가난한 국가들에서는 구경조차 힘든 현실, 백신

불평등이 오미크론 같은 변이들을 만들어낸다고 전부터 경고해왔다.

저소득 국가들 미접종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염은 계속되고, 변이가 거듭되면서 전염성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인 변이의 출현으로 기존 백신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경고였다.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는 한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석천 '인드라' 구슬그물

현대 물리학은 세계를 복잡계로 해석한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리츠프 카프라 물리학자는 ‘생명의 그물’이라는 저서에서 모든 현상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생명체는 촘촘히 짜인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어서 서로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수호신으로 금강저와 인드라 구슬 그물(인드라마)을 무기로 악마를 물리치는 ‘제석천’의 연기법 가르침과 상통한다. ‘제석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는 하늘인 도리천의 주인으로, 수미산 중턱의 사천왕을 거느리고 불법과 불제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설법 자리에 나타나 법회를 수호하고 사바세계에 있는 인간의 번뇌와 죄를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드라마는 이 제석천의 궁전에 드리워진 무수한 투명 구슬이 촘촘히 꿰어진 그물망이다.

인드라마의 그물코로 연결된 투명 구슬들에는 우주 삼라만상이 휘황찬란하게 투영되고 구슬들은 서로서로 다른 구슬들에 투영된다. 인간의 구슬은 자연의 구슬에, 또 자연의 구슬은 인간의 구슬에 투영된다. 시간의 구슬은 공간의 구슬에, 또 공간의 구슬은 시간의 구슬에 투영된다.

나비 날갯짓 어딘가에 폭풍 때

이것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이고, 이런 세계에서 나비의 날갯짓은 어딘가에 폭풍을 일으킨다. 나비효과이다. 중국 우한에서 기침하니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세계는 하나로 연결

코로나 19가 주는 교훈 혹은 경고가 있다.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촘촘한 그물망 저편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편이라고 안전할 수

없다.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률 낮은 국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다. 서약한 백신 기부도 제 때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가진 자의 선심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

백 년도 안 된 시간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공동체 문화였던 우리네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지 서로에게 관심을 안 주고 살아가는 홀로 일상이 되어버렸다. 관심과 배려가 오히려 흠이 되고 마는 세상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긴 최첨단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고 흔들고 있다.

'변화'도 문화의 한 모습

변화도 시대를 따라가는 문화의 한 모습이다. 세상이 급변하고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다.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것에게 지배받기보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성, 사랑, 소통 등 인문학적 교육을 우선으로 꼽아야 하겠다.

2022년 임인년 첫날에는 지구촌이 호랑이의 기운과 용기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 모두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조계사에서 봉행된 전국승려대회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의 장

불기2566년1월21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전국승려대회에 전국 곳곳에서 집결한 5000여명 스님들은 억눌려온 감정을 조금씩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된 종교 편향과 정청래 의원의 ‘몽이 김선달’ 발언으로 시작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만든 자리였다.

전국 25개 교구 본말사에서 이른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집결한 스님들은 장시간 추위에 떨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불교가 아무리 자비 문종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나 정청래 의원이 사과하고 참회하는 것과 별개로 불교계가 느끼고 있는 소외감과 직면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국민을 대변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정책

을 맡은 이들이 종교에 대해 편향한 시각을 가지고 신중치 못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 이번 승려대회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의 불교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이웃

종단 소속 스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불교계의 스님들이 법회에서 깨려했던 건 ‘종교편향’ 이고, 드러내려 했던 건 ‘상생’ 이다.

종교편향·왜곡이 사라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바라보아야 할 승려대회였다.

(글 조여래장)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청계사를 향해 조용히 솟아오르고 있다. 흑 호랑이의 기운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녕이 계속되길 서원한다. 또한 지난 한해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헤매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빨리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임인년 한 해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사진제공 이용산)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 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안양교도소 이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조수환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종순 50부 김대희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교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김진식 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주 대궁 종상
주지 성행

총무 : 성견 재무 : 명원 포교사 : 명혜 노전 : 정타 부전 : 원당 원덕

- ▶홍신도회 상락회 지장회 관음회 합창단 출판부 육법회 삼보회 금강회 승무단
- ▶불기관리부 다라니회 문수회 보현회 마야회 청다회 목어본팀 목어회1팀 목어회2팀
- ▶목어회3팀 우담회 보리수회 정업등연구회 염불봉사단 마지공양단 108선원순례단
-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천진불회 청년회 불교대학교학처
- ▶청계불교대학 총동문회

- ▶대궁선원
- ▶부경대경인동문회
- ▶서울구치소 불심회
- ▶의왕시 공무원불자회
- ▶성남시 공무원불자회
- ▶의왕경찰서 불자회
- ▶분당경찰서 불자회
- ▶마사회 법우회
- ▶청계사 중무원
- ▶녹향원 임직원
- ▶희망나래종합복지관 임직원
- ▶청계주간보호시설임직원
- ▶대궁어린이집 임직원
- ▶하동청소년수련원 임직원
- ▶카루나봉사단

* 부설 운영기관

- ▶녹향원
- ▶희망나래복지관
- ▶청계주간보호시설
- ▶대궁어린이집

선요

우리나라 조사선의 전통이 뿌리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요(禪要)>는 중국 남송시대 입제종의 맥을 이은 고봉(高峰)스님의 범문집으로 강원에서 사집과와 학인스님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고봉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본래성불(本來成佛)과 순간 깨침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하근기 사람을 위해 참구깨침의 방편으로 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화두를 참구해서 확철대오에 이르는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나 경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편지자주>

解制示衆(解制때 대중에게 敎示하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중간에 한 놈이 있어 집안일(家業)에 가히 돌아갈 것도 없고 禪道도 가히 배울 것 없고 생사도 가히 해탈할 것 없으며, 열반도 가히 증할 것이 없다 하여 종일토록 騰騰任運 任運騰騰 하나니 만일 점검하여 날진댄 석가 마릭이 너로 더불어 병을 잡고 발우를 잡을 지라도(시봉한다는말)분이 가 되지 않거나와 진실로 혹 그렇지 못한다면 拂子로서 禪床을 두 번 내리치고 할 또 할 하고 이르되 만일 諸方에 이르거든 간절히 그르트는 것(錯舉)을 등하라.

대중에게 교시하다.(示衆)

(이 일은 人人本具하며 箇箇圓成하나 心識이 靈光을 가리어 나타나지 못하니 급히 여울에 배를 대는 것같이 하되 믿음과 의심을 철저히 하여 꾸준히 나아가면 곧 到家의 소식이 있으리라 권격함.)

슬프다. 말법에 성인과 상거한지 때가 멀어 지니 많이 일등 泛泛之流가 마침내 禪門 있음을 믿지 아니하고 단지 이곳에 穿鑿하고 저곳에 계교하나니 성공하고 穿鑿하여 성취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눈빛이 떨어질 때(죽을 때)에는 도리어 써서 맞음을 얻는가, 언지 못하는가.

만일 얻었다면 세존의 설산 六년과 달마의 소림 九세와 長慶이 앉아 일곱 개의 포단을 뚫어낸 것과 香林이 四十년간 一片을 이룬 것과 趙州가 三十年간 잠된 마음을 쓰지 아니한 것은 어지 모름지기 허다히 고생당한 것을 찾았을 것인가.

다시 일정한 놈이 十년 二十년을 공부하되 일찍이 한 개 歸入處에 들지 못한 것은 다만 저가 일찍이 靈骨이 없어서 뜻이 견고하지 못하고 半信半疑 혹은 넘어지기도 하고 혹 일어나기도 하여 희롱해 오고 희롱해감에 세상에 정을 轉轉히 익히고 道해가는 생각은 점점 생소

마음과 마음을 서로 잇고 생각과 생각을 상속하여 굳게 화두를 잡아 徒作(도작)을 용납하지 말라.

만일 이 한 가득 기특한 일을 논한다면 사람 사람이 본래 갖추어 날남이 圓成에 있으니 주먹을 움켜쥐었다가 다시 손바닥을 펴는 것과 같아서 확연히 실될 만큼의 힘도 없거나 아니 하건마는 마음 원승이 (八識)이 어지럽고 뜻 말(意馬=七識)이 시끄러워(喧喧)방자히 三毒無明을 놓아 망령스런 人我를 집착하는 것이 물을 얼음위에 뿌림에 더욱 두텁게 어느 것 같아서 자기의 영광을 장애하여 결정코 얻어 나 타낼 이유가 없다.

만약 무쇠로 만들어진 놈이 절실히 밝히기를 요한다면 또한 造次가 아니니 바로 모름지기 큰 뜻을 발하고 큰 원을 세워 마음 원승이와 뜻 말을 죽여 버리고 망상진노를 끊어 없애고 급히 내리는 물에 배를 대는 것과 같이하여 危亡得失, 人我是非를 돌아보지 말라.

먹고 자는 것을 잇고 생각을 끊어 晝三夜三에(晝三은 巡當 放禪이고,夜三은 梵修이니 開寢, 起寢이니 一切時를 뜻한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잇고 생각과 생각을 상속하여 각두를 꼭 잡아매고 이를 악물고 굳게 繩頭(화두)를 잡아 정하여 다시 실될 만큼도 徒作을 용납하지 말라.

가령 어떤 사람이 너의 머리를 쥐고 손발을 꿸고 心肝을 베어내어 명이 마친다 하더라도 진실로 버리지 말 것이니 이 속에 이르러서야 바야흐로 약간 공부를 짓는 기미가 있을 것이다.

하여 열두시 가운데 한 때만이라도 잡아 定을 얻어 처 一片을 이루기 어렵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바로 넉넉히 彌勒下生에 이룰지라도 또한 무슨 교섭이 있겠는가.

만일 진정한 本色行脚高士라면 아무 때나 함을 즐겨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문득 한 개 作家를 찾아 겨우 一言半句라도 들어 일러짐을 듣고 다시 망설이지 아니하여 바로 곧 이렇게 높고 主人이 되어 잡아 정을 얻어 홀로 빛나고 높고 높아 淨裸裸 赤灑灑 다시 危亡得失을 묻지 않고 다만 이렇게 잡아가면 맥연히 줄이 끊어지며 자빠지고 끊어졌다 다시 소생하여 저의 本地風光을 볼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를 찾을 것인가. 또 한 계가 있어 대중에 들어 보인다.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화경

신해품(信解品) 즐거리 <상>

제4 신해품(信解品)에서는 부처님의 제자가 자기 집에 헤아릴수 없을 만큼 재물이 많은데도 그걸 모른채 가난하게 타향을 떠돌아다니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 제3 '비유품(譬喩品)'의 불타는 집 이야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간 뒤 우리가 가는 곳은 다른 곳에 있는 정도도, 멀리 있는 극락세계도 아니다. 바로 자기 집이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인 해탈이라는 뜻이다.

'신해품'은 부처님의 성문제자 4인(수보리, 가전연, 가섭, 목련)이 자신들의 소승법을 넘어선 일승법에 대한 신해, 즉 믿음과 이해를 부처님께 사된다. 부처님의 성문제자 4인이 부처님에게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묘한 불법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는 무량보배를 얻은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명한 장자공자(長者窮子)의 비유를 부처님께 여쭙는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 부자 장자(長者)의 아들 공자(窮子)는 어렸을 때 멀리 타국으로 도망쳐서 오랫동안 공궁하게 살았다. 아버지 장자는 더욱 부자가 되어 한량없이 많은 보배, 즉 부와 귀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단지 걱정이 있다면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간 뒤 가는 곳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탈'

그런데 아버지 장자가 어느날 멀리 성문입구를 바라보니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신의 아들이날땀팔이 일자리를 찾는 듯이 기웃거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신하들에게 아들을 데려오게 하지만 아들은 무슨 벌이나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을 내니,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그냥 가게 한다. 아버지 장자는 몰골이 파리하고 위엄이 없는 신하 둘을 불러서 "퐁치는 일을 하면 두배의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활기분해될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불경연구가 페이용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 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지자주>

품을 준다."고 말하게 하여 겁에 질려있는 아들 즉 공자를 데려오게하였다. 장자는 모든 보배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모습으로 공자에게 접근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일을 잘하면 보수도 더 많이 올려주겠다고 달래면서 안심시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간 뒤 가는 곳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탈'

켰다. 그 후에 장자는 공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을 삼으나, 공자는 여전히 천인이라 자처하고 퐁치는 일만 계속하려고하였다. 그때 장자는 중병이 들어서 죽음이 멀지않음을 알고 공자를 불러 창고마다 가득한 보물과 금고를 지어 키는 일을 시켰다. 공자는 장자의 말을 듣고 금은보화와 창고 안에 있는 진귀한 보물까지 재산 상황을 모두 파악했

다. 얼마 후 장자는 공자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을 느꼈다. 공자가 웅졸한 마음을 버리고 큰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갖기 시작했다. 마침내 임종할 때가 되자 장자는 국왕, 대신, 귀족, 거사 등 유지들을 불러놓고 발표했다.

"공자는 바로 옛날에 집을 나가 외롭게 떠돌아다닌 나의 아들이다.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아들의 것으로 수입과 지출은 아들이 처리할 것이다."

공자는 장자의 말을 듣고 생각지도 못했고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큰 보배의 주인이 바로 친아버지이며 자신이 정당한 상속자임을 알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이 장자공자의 비유를 부처님께 사된 가전연등 성문들은 그 비유에 나타나는 공자처럼 자신들이 과거에 하루의 품삯 같은 작은 열반에 만족하고 일승법을 구하지않았음을 뉘우친다. 부처님이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이고 자신들은 부처님의 일승보살도 대승법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깨달음과 자부심을 부처님께 고한다.

뉴스&뉴스

표창장 수여



지난 12월 31일 법무부장관(박범계)으로부터 수용자 교정교화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으로 명원(재무)스님이 표창장을 받았다. <글 주향진성>

선달 초하루 기도

1월 3일(음력 12월 1일)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음력 신축년 선달 초하루, 청계사 정각과 야외법당에서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사시 예불을 봉

어린이 법회

불교 스카우트 온라인 연합법회

임인년 1월 23일 불교스카우트 대원 25명이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차원에서 불교스카우트 온라인 연합법회가 진행됐다. 온라인 연합법회는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에서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스카우트 지역대 주관으로 진행됐다.

청계사 지도법사 수인스님이 제안한 특별법회는 불

행했다.

합창단의 '여래의 마음' '홀로 아리랑' 음성공양은 맑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여 새해 새마음 가짐으로 예불을 보는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주지 스님은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하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불안해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 힘을 갖추고 의연한 마음가짐으로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고 덕을 베풀며 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법문했다.

<글 서용화수>

희망나래 임인년 시무식

지난 1월 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관장 지현스님을 비롯하여 백상훈 사무국장의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종사자 39명과 실습생 4명이 청계사 설법전에서 임인년 새해 시무식을 가졌다

성행 주지스님(운영위원장)은"2021년 코로나19속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와 신년맞이 새로운 마음가짐, 타인을 사랑함의 중요성등 사회봉사자 이전,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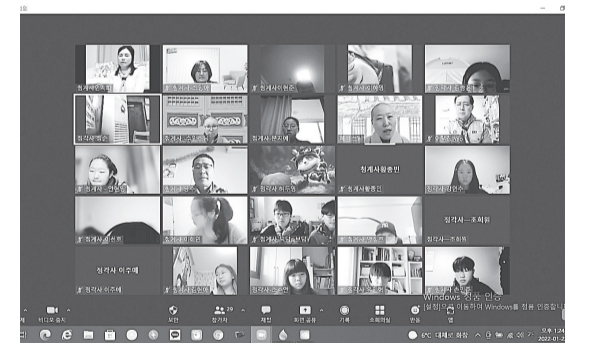
도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건네며 직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격려사를 했다.

이어 성행 주지스님이 천연비누, 삼품권, 생활용품 등,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준비해 준 상품을 경품추첨 통해 직원들에게 이색 이벤트로 재미를 더하는 시무식이 될 수 있었다.

어느 직원은"성행 주지스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복지관이 되기를 직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말을 건네며 직원 간 멤버십 감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사용서원 봉행 후 화이팅을 외치며 단체기념 촬영을 끝으로 시무식을 마쳤다.

<글 조여래장>



정초신중기도

- 입 재 : 불기 2566(2022)년 2월 3일 (음력 1월 3일) 목요일
- 회 향 : 불기 2566(2022)년 2월 9일 (음력 1월 9일) 수요일
- 기도 비 : 5만원
- 새해소망등 : 1만원(1인1등)

입춘 기도(삼재 소멸)

- 일 시 : 불기 2566(2022)년 2월 4일 (음력 1월 4일) 금요일
- 삼 재 때 : 원승이, 쥐, 용띠(신, 자, 진)
- 입 춘 시 : 오전 5시 51분
- 기 도 비 : 5만원(삼재소멸, 재수, 안전운행, 입춘대길 다라니 드립니다)
- 준 비 물 : 새 내의 한 벌
- 차량운행 :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운행
- 온 라 인 : 기업은행 109-058786-01-413(예금주:청계사)
- 문 의 처 : 종무소(031)426-2221,2348 (기도접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월방생 법회

코로나로 인해 임인년 정월방생을 아래와 같이 병행합니다. 방생법회는 사찰에서 기도한 다음 방생물은 스님들과 신도회 임원들이 방생지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신도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66(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사찰에서 방생법회 방생지 (백운호수 또는 왕송호수)
- 동 참 금 : 5만원
- 동참금중 일부는 영산전 불사금으로 입금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

불교속에서 본 호랑이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용맹한 호랑이 모습이 나타나 있다. (만봉스님 작문)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이다. 십이지의 호랑이는 방위상으로는 동북 방향, 시간상 오전 3시에서 5시, 달로는 음력 1월을 지키는 신이다.

호랑이는 한국인에게 공포의 상징인 동시에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로 인한 재앙 즉, 호환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호랑이에게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제를 지내기도 했다.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을 비롯해 민가에서는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각종 민화와 전설·구전설화에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명나라와 청나라 등에서는 호랑이 이야기로 가득한 조선에 '호담국(虎談國)'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국도가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이도 있고, 우리 국민성이 호랑이처럼 용맹스럽다고도 한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영물인 동시에 그 특유의 위엄과 용맹성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 인식되어 있다. 대승보살이자 협시보살 중 하나인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문수보살이 중생들에게 화현해 지혜를 전하는 현장에 등장하곤 한다.

당대의 선지식을 호랑이로 지칭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대변한다. 가야산 호랑이로 불렸던 성철스님과 가지산 호랑이 인홍스님, 오대산 호랑이 탄허스님, 조계산 호랑이 활안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산 중 사찰에서 용맹정진한 끝에 확절 대오한 선지식들이 치열한 수행력과 기라성 같은 깨달음의 일성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모습에서, 각 산을 대표하는 호랑이로 연관

지킨 셈이다.

전국 사찰의 산신각에서는 영물로 형상화된 호랑이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산신각은 불교 토착화의 한 형태로, 민간신앙이었던 산신 사상과 불교가 만나면서 나타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호랑이는 인간을 보호해 주는 수호적 존재이자 호환을 방지하기 위한 존재로 신격화되면서 산신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산신 탕화에 등장하는 산신은 대부분 호랑이를 타고 있거나 호랑이를 앞뒤로 거느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호랑이가 산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호랑이는 산신을 모시는 시

자(侍者)요 안내자라는 인상이 짙다. 흑 산에서 가장 영험스러운 동물이 호랑이라는 데서 산신령이 호랑이로 투갑했을 법도 하다. 산신 신앙이 불교와 합쳐지는 과정에서 호랑이는 나한이나 스님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호랑이는 우리 문화 속에 등장하는 까치 호랑이의 모습 그대로이다.

민화 속에는 액이나 악귀를 물리치는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렇듯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 친근하고 해학적으로 그린 것은 그 범접하기 어려운 신성성과 더불어 곤경에 처한 인간들을 도와준다는 친밀정서의 양가감정(兩價感情) 때문이라고 한다.

각종 설화 속에서도 호랑이는 단골소재로 등

장한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나타난 호랑이는 살생을 하는 천성으로 보살행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굶어 죽어가는 호랑이 가족을 만나 스스로 몸을 보시했다는 내용이다.

호랑이에게 먹히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형태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보살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호랑이는 반야사 창건 설화에도 등장한다. 반야사 중창을 명한 세조가 대웅전에 참배하자 문수동자가 나타나 절 뒤쪽에 있는 개천에서 목욕을 권했다. 세조가 목욕을 시작하자 문수동자는 부처의 자비가 따를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때 문수동자가 타고 온 호랑이가 아직도 백화산에 남아 반야사를 지키고 있다고 전한다.

서울 호암사가 호암산의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 지어졌다는 설화는 유명하다.

조선왕조 개국 후 태조는 도읍을 한양으로 이전키 위해 경복궁을 중창했다. 그러나 공사는 원만하지 않았다. 뜰을 세우는 족족 무너져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어느 날 태조의 꿈에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호암산 호랑이 기운의 꼬리부분에 절을 세운다면 궁궐이 무사히 축조되고 왕조의 기운도 성성하게 뻗어 나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때 노인이 알려준 호랑이 기운의 꼬리부분이 바로 지금의 호암사가 위치한 곳이다. 이후 무학대사가 "달아나는 호랑이 형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해 지어진 곳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자암이라는 설화도 함께 전해진다.

(정리 여영광)

호랑이해 불교 소사

- △기원전 979 기록이 있는 첫 번째 임인년
- △기원전 19 고구려 유리명왕 즉위
- △631 원광스님 입적
- △702 의상스님 입적
- △918 처음으로 임관회 설치
- △1422 경행행사 폐지
- △1410 해인사에 대장경 인쇄 명령
- △1458 해인사 대장경 인쇄해 사찰 분배
- △1902 사찰령 36호 공포 식민지 불교시대 시작
- △1926 민해 함응운 (님의 침묵) 간행
- △1938 김계 금산사 낙성식. (불설)창간
- △1950 국보 청량사 화재로 소실
- △1962 불교재산관리법 제정 공포
- △1974 조계종 전국승려대표회의 개최. 조계종 중정 고암스님 취임. 월간(불광)·월간(불교문화), 창간
- △1986 전국승려대회 개최. 불교탄압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1988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황해북도 사리원 금강국공장 준공. 대한불교종중총연합회 창립. 평화개혁회의 발족.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에 고산스님 당선
- △2010 '무소유' 법정스님 입적. 문수스님 소신공양
- △2022 전국승려대회 개최

■임인년에 나는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까?

임인년(壬寅年)은 다른 새해와는 좀 다르게 다가온다. 환갑(還甲)의 의미보다는 몇 해 전부터 되풀이 되는 '지난해는 빨리 갔나? 늦게 갔나?' '새해는 어떻게 갈 것인가?' '새해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올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약간의 대답이 생겼기 때문이다.

남들과 똑같이 어릴 적에 '넌 무엇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에 그때 그때 대통령, 장군, 판사 등으로 포부(?)를 밝히던 때를 지나,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던 바쁜 시간에는 주어진 환경대로 흘러가는 세태밀착형 삶을 훌륭히(?) 살면서 이런 저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지천명(知天命) 후반까지 별 생각 없이 살았던 나에게 세월은 그래도 위

결론을 찾지는 못했지만 계속 바라볼 곳은 생겨 어긋나지 않는 마음 닦고 행하면 불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와 같은 질문을 보내왔고 지난 2~3년 정도의 시간은 참 빨리 가거나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슴 비가, 가슴바가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물론 결론을 찾지는 못했지만 계속 바라볼 곳은 생긴 것 같다.

어릴 적뿐 아니라 이 고민의 시작 전까지 '넌 무엇이 되고 싶어?'의 굴레를 못 벗어나 살았다. 그래서 마음에 질시, 동경을 위한 동경, 미움, 억지, 체념 등의 상처가 되는 감정들이 부정적으로 무한 굴레를 형성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다.

선지식(善知識)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자'를 찾은 것이 사뭇 대견스럽다. 물론 타협의 논리로 평가절하되고 '다 그렇게 생각해' 라는 대꾸에도 속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행복의 씨앗을 윤택우는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

을 가지도록 소중하게 내 마음을 키워야 한다.(나는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 세니사킨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득이 생겨도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길은 선택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둘째, 따라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앞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불혹, 이순등의 나이와 빛년 표현을 많이 알고 있고 읊조린다. 하지만 항상 그 나이에 그렇지 못한 상태라 따라 가기 바쁜 것 같다. 이에 10살 앞의 상태를 목표로 매진하면 조금이라도 앞선 삶을 살지 않을까 한다. 논

어(論語)에서 70세가 되어 중심소욕(從心所欲: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았으니) 불유구(不踰矩: 법도에 어긋나지 않다)라 하였다. 법도나 인간의 도에서 어긋나지 않는 마음을 닦고 행하면 불도에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많이 느끼고 체현한 행복한 순간은 봉사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꾸준한 봉사는 양보할 수 없는 실천 항목이며 수단이다. 남을 위해지면 금상첨화이고 아니더라도 내가 보상받는 순수한 배움의 마법이다. 물론 이 외에도 행복하기 위한 많은 길이 있겠지만 위의 세 가지도 벽간 목표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과 인생에서 쉬었다 갈 지언정 가야만 하는 길이라 생각이 든다. 임인년을 맞이하여 여러 스님들과 도반들 함께 이 지면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신 청계사에 감사하고 도반님들의 불도 성취를 함장배려 합니다.



심준흠 (성남시 분당구)

큰 딸이 나를 온전한 불자로 이끌어 줘

2022년 임인년인 올 해는 나의 나이가 61세, 환갑이 되는 해이다. 환갑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있다. 내가 일곱 살 때쯤인가 외할머니의 환갑 잔치날 외할머니와 외갓집 식구들의 풍경이다. 예전에는 수명이 길지 않은 때라 환갑이 되면 선대하게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흥겹게 보냈었던 거 같다.

그 날 외할머니께서는 외삼촌 등에 업혀서 눈물을 흘리며 덩실 덩실 춤을 추시며 모두가 같이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그 래서인지 환갑하면 그 모습이 늘 오버랩 된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환갑을 아련한 슬픔이라 생각하는 자체를 잊은 지 오래된 거 같다.

친정아버님이 94세 어머님이 87세이시다. 아직까지 크게 아프신 데는 없으시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나의 인생도 부모님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저 평범하게 보내리라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우리 부부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이 생겼다.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늘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광명진언을 중얼거렸다.

또한 지인들의 많은 격려와 야깁없이 내어준 도움으로 조금씩 극복되어지고 있었다. 부처님의 인연법만이 이해가 되고 설명 될 수 있는 일을 겪으면서 불자가 된 것은 필연이라 생각되어진다.

어느 해 가을 늦은 오후, 남편 승진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들 손잡고 처음 청계사를 찾아 극락보전을 참배해 부처님께 어색한 자세로 오세득주하며 낮부끄럽기도 했지만 남편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내려왔다. 그 날 밤 꿈에 묘자 속에 숨겨진 남편이 즐겨 매던 넥타이를 출근 시간에 가 까스로 찾는 꿈을 꾸었다. 이 후 남편은 승진을 했다. 온전한 불자가 된 것은 그 후로도 함참을 지나 큰 딸 대입을 앞두고 21일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서이다. 큰 딸이 나를 온

전한 불자로 이끌어 준 것이다. 큰 딸이 대학을 가고 난 후 시댁 부모님의 영구위패를 지장전에 모셨다. 시

부모님이 늘 계시는 나의 절이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다. 거기에 월간 청계사보를 만드는데 11년째 동참 할 수 인연에도, 엄마 같은 출판부장님과 늘 한결같은 도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신각과 열반상을 병풍처럼 두른 여름의 푸르름, 야외법당에서 내려다보는 붉은 가을 절경, 수없이 많았던 부처님의 가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

이 생애 악업을 더 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매일 부딪히며 같이 익어가는 도반들과 ~^^~



심대덕심 (청계사 출판부)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p>◇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p> <p>◇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p> <p>◇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p> <p>◇ 지정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p>	<p>◇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p> <p>◇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p> <p>◇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p> <p>◇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p> <p>◇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p>	<p>◇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살법전</p> <p>◇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p> <p>◇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p> <p>◇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p>
---	--	--

제8회 인생함양 스키캠프 참가 안내

- 행사명 : 제8회 인생함양 스키캠프
- 행사 목적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랜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겨울철 흰 눈과 별빛의 어우러짐 속에서 정서를 순화하고, 스키를 통한 흥미와 재미를 바탕으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함.
- 일 시 : 2022년 2월 18일(금) 09:00 ~ 2월 19일(토) 13:00
- 장 소 : 포천 배어스타운
- 대 상 : 어린이·청소년법회 회원 누구나
- 참가비 : 14만원(7만원 자부담, 7만원 연맹 지원)
1) 포함사항 : 숙식비, 수송버스비, 스키강습비, 스키렌탈비, 상해보험료
2) 미포함사항 : 스키복 대여비 (희망자 현장 대여 시 10,000원 별도 부담)
- 준비물 : 스키복, 스키장갑, 고글, 여벌옷, 세면도
- 문의처 : 010-4899-1826(포교과장 연락처)

불교 스카우트 연맹

※ 차량안내
미가참자(구 오성길비)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임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6,075,0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후원자분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지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12월 봉사자 명단

봉사활동 없음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시작은 늘 설렘과 기쁨

코로나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소소한 행복 나누는 날 기원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작은 늘 설렘과 기쁨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과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이 통제되어 내부생활에서의 다소 답답함을 표현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코로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만, 지원하는 우리들도 버거운 상황들을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 인건 실내의 여유로운 면적의 공간이 확보되어 정



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적인 어려움 상황들을 비추어 보아도 참으로 행운이라 여깁니다. 이 모두는 봉사활동은 못하

만 응원 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자원봉사자님, 믿음과 신뢰로써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후원자님, 아린 가슴으로 늘 걱정 많으신 보호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거주 가족들이 더 많이 웃는 즐거운 일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올 한해는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글 녹향원장 김나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1년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Table with columns for 수입 (수입), 지출 (지출), 전월이월금, and 차기이월금. It details financial transactions for the period from Nov 1 to Dec 31, 2021.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1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List of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categorized by amount (e.g., 15,000원, 20,000원, etc.).

물품 후원

- List of donated items such as '파리바게트 인덕원점-빵', '장미영-글', '최형용-강정', etc.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임인년 새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각을 얻으신 성도절을 지나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또 한 해가 왔구나! 나이가 한 살 더 막게 되는구나.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에 대한 구상이며 앞으로의 삶의 계획 등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해지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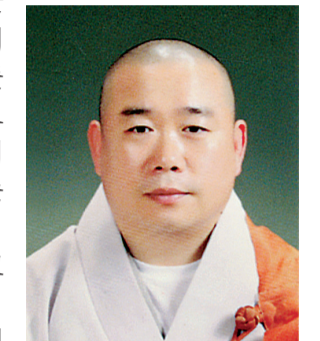
많은 세월을 맞이하고 보내고 살아왔다.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면 마치 새로이 시작되는 듯이 멍해지기까지 하는 것은 잊고 싶은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건만 무엇이 우리들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지 의문이 간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정국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 또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한 인연이기에 우리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올해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이다. 임인년이 시작되면서 뱀, 닭, 소피의 삼재가 끝나고 원숭이, 쥐, 용피의 삼재란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를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서로의 고민, 어려움, 기쁨, 행복 나누며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 수행, 기도, 봉사하면

큰 자비애가 심어져 부처님 가피로 충만

일들이 많고 기대하는 일들이 많아져 스스로가 정리 정돈이 잘 안돼서 그런 것 아닐까 싶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 는 유마거사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동업 중생들이 아닌가.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서로의 기쁨과 행복 또한 서로 함께 즐겨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란 함께 라는 것이 어설피지 않고 공감대로 형성되어 보다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세상이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 서로에게 배려와 이해와 양보가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수록 양보하고

뜻하는 말로 누구에게나 12년 중 3년씩 찾아온다.

대장군과 삼살방은 모두 복쪽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하여 복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사, 취업, 개업등 하면 일이 안 풀린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한 해의 운세와 삼재풀이를 하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희망을 가지면서 수행도 기도도 봉사도 하다 보면 나의 내면에는 큰 자비애가 심어져서 항상 어디 가나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질 것이다.

임인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불은 (佛恩)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세요. 나무 석가모니불

생활의 지혜

- 초고추장을 만들 때 너무 되직하다 싶으면 물 대신 사과를 갈아 넣거나 사이다를 조금 넣으세요.
• 생선튀김을 할 때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고 싶다면 생선을 미리 녹차 우린 물에 담

Large section titled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containing 12 zodiac sig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with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and advice.

이제부터는 (정리 심 대덕상)